

“석유화학 통합해야 생존한다”

노기호 LG화학 사장, 2002 APIC 기조연설에서 필요성 강조

노기호 LG화학 사장은 5월10일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계속 발전하려면 전문화·차별화 제품 생산에 더욱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기호 사장은 COEX에서 열린 [2002 아시아석유화학공업회의]에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21세기 비전] 기조연설을 통해 석유화학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는 사실이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다면서 M&A를 강조했다.

또 세계적 경쟁체제에서 한국 석유화학업체가 현재처럼 소규모로 난립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며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교환, 합병,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2위의 석유화학기업인 Sinopec의 주유 경제기술연구원장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에틸렌 수요는 연평균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성수지 수요는 2005년 2950만톤, 2010년 398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에틸렌 수요의 60% 이상을 자체 충당한다는 목표 아래 에틸렌 생산능력을 최소 900만톤으로 확장하고 Shanghai와 Nanjing에 각각 100만톤 크래커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w Chemical Pacific의 패트릭 호 사장은 석유화학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급과잉이 해소되려면 앞으로 12-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아·태의 석유화학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2003년께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13 >